



전남농협, 농축협 건전결산 전략회의

농협전남본부(본부장 이광일)는 최근 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관내 농축협 상임이사·전무·시군 회원지원담당 등 16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건전결산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전남농협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연말 건전결산을 위해 전략회의를 기획했으며, 이날 회의는 연도말 손익전망과 최근 상호금융대출 연체율 증가에 따른 건전결산 위험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연체채권 감축과 사업량 확대를 통한 손익목표를 기밀코 달성할 것을 다짐했다.

이광일 본부장은 “올 한해도 고금리, 물가상승 등으로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농축산물 수급 불안정, 경기침체 등으로 농축협 경영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2025년도 농축협 건전결산과 클린 전남농협의 구현을 위해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수 기자



동신대, 일본 대학들과 인재양성 협약

동신대학교가 일본 하코다테대학교, 작신대학교, 시즈오카산업대학교 등 3개 대학과 잇달아 교류 협약을 맺으며 글로벌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동신대에 따르면 이주희 총장은 최근 일본을 방문해 하코다테대학교(총장 노마다 준지), 작신대학교(총장 와타나베 히로시), 시즈오카산업대학교(총장 호리카와 토모히로) 등 3개 대학과 각각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하코다테대학교와는 학생 교류, 공동연구, 교수 교류 등을 포함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교환학생 및 단기 교류프로그램 등 세부 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의 폭을 넓혔다. 동신대의 평생교육학생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광 분야 단기 파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작신대학교와는 2007년 맺은 교류 협력협약을 바탕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공동연구와 교수 교류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

시즈오카산업대학교와는 작년 교류 협약에 이어 교환학생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세부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최하준 기자



빛고을50+센터, 인생학교 7기 졸업식

광주시 빛고을 50+센터가 서구 장년층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빛나는 인생학교 7기 교육과정인 ‘찾아가는 분소프로그램’을 마쳤다.

장년층 교육과정인 인생학교로 ‘찾아가는 분소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서구편 졸업식은 광산구 편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2월~4월 진행된 ‘빛나는 인생학교 7기’는 서울 인생학교 출신 강사를 초빙해 매주 수요일 서구청 세근대 평생학습관에서 △나에게 건네는 인사 △친구들과 소통 △자치회 구성·임원 선출 △커뮤니티 도전 △프로젝트 도전과제 점검·실행 등을 선보였다.

유영용 50+ 센터장은 “각 구의 장년층 시민 교통편 등을 고려 인생학교 과정으로 앞으로 남구 편, 북구 편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광주 장년층이 백세시대 삶의 황금기인 인생 2막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새로운 100년 향한 출발선... 도전·혁신하자”

한전KPS 창사 41주년 기념식 지속성장 다짐...우수직원 포상 지난해 창사이래 최대매출 달성

한전KPS가 최근 창사 41주년을 맞아 본사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열고 지속성장하는 새로운 100년 기업으로 도전과 혁신의 각오를 다졌다.

30일 한전KPS에 따르면 기념식은 한전KPS의 발전정비 시장에서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지난 41년간의 성과를 영상으로 조망하고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을 시행한 뒤 새로운 100년 기업으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기념사로 마무리했다.

김홍연 사장은 “발전정비 산업 전반에 걸쳐 더욱 정교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전KPS는 전력설비의 단순 정비를 넘어 기술과 고객가치를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전력산업의 미래를 이끌어야 하는 시



한전KPS가 최근 창사 41주년을 맞아 본사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열고 지속성장하는 새로운 100년 기업으로 도전과 혁신의 각오를 다졌다. 한전KPS 제공

대적 과제를 앞두고 창립 41주년을 맞이해 임직원 모두 새로운 100년을 향한 도전과 혁신의 각오를 다지자”고 말했다.

이어 “지난 41년간 한전KPS는 임직원 모두의 헌신과 땀방울 덕분에 모든 어려

움을 당당히 헤쳐 나갈 수 있었다”며 “창립 41주년을 과거의 영광으로 묻히지 말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출발선으로 만들어 지속가능한 100년 기업, 한전KPS를 향해 합차게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한전KPS는 지난해 국내외 어려운 경영환경 가운데에서도 창사이래 최대인 매출액 1조 5,343억 원, 영업이익 2,077억 원, 당기순이익 1,710억 원을 달성했다. 홍승현 기자

금타-대한통운, 모빌리티서비스 강화 협약

금호타이어는 CJ대한통운과 업무협약을 맺고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CJ대한통운은 물류와 배송 서비스의 선도 기업으로, 최신 기술과 시스템을 활용한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인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협약을 통해 타이어 방문 장착 서비스뿐만 아니라, 차량 운행에 필요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의 물류 인프라와 금호타이어의 타이어 전문 기술을 결합해 고객이 집에서도 편리하게 타이어 교체 및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가 제공하는 ‘또로로로 방문장착 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전문 장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이어를 장착하는 서비스다. 자사 타이어 전문과정을 이수한 인원이 직접 방문 해 서비스 센터에서 받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홍승현 기자

법무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협의회장배 골프대회 ‘성황’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협의회(회장 안병열)가 지난 29일 장성 푸른솔GC에서 250명의 회원들과 함께 제2회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고영훈 지부장)가 주관하고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가 주최한 대회는 보호대상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조



성, 법무보호사업 지원을 위한 자선 모금 및 법무보호사업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골프경기를 시작으로 기부금 전달식, 감사패 전달, 시상 및 만찬 등이 진행됐다.

황영기 이사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관심과 지원 감사드린다”며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영훈 광주전남지부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안병열 협의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 자립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전재형 의료지원위원회 회장, 물품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김윤철)가 30일 의료지원위원회 전재형 회장으로부터 의약품을 기부 받았다.

기부 의약품은 아쿠아밴드, 여드름패치, 버블리 등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기초 의약품으로 속식을 제공받는 보호청소년과 경제적 여건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

인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제공된다. 전재형 의료지원위원회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 사회복귀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대상자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철 지소장은 “기부 의약품은 꼭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진산요양원, 지역기업 4곳서 기부금 받아

진산요양원(원장 김용권·국제학 박사)이 30일 진산관 1층과 식당에서 지역 기업들과 함께 기부금 수령 및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아자동차 1차 밴드인 박건우 ㈜두들기업 대표, 장동석 ㈜지우테크 대표, 윤창권 ㈜호원 대표, 홍정수 ㈜캠스 대표 등 4개 지역 기업이 참여

기부금을 전달했다. 기부금 전달 후 청소 등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김용권 진산요양원장은 “지역 기업들이 사회복지법인 진산의 뜻에 동참해 줘 보람을 느낀다”며 “생활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이재순 기자